

# 전주 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 추진 탄력

## 도의회 동의안 가결로 정부 심의 단계 진입... 향후 기획예산처 등 정부 심의 준비에 '만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42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 심의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경쟁 과정에서 전북도의 유치 추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동의안 가결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전주 올림픽 유치 추진에 대한 도의회의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도는 그동안 올림픽 유치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도약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 왔다.

특히 한국스포츠포워드위원회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비용편익비(B/C)가 1.03으로 분석돼 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됐다. 이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투입 비용을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확고하다. 여론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82.7%, 전북 지역에서는 87.6%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전주 하계 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가 단순히 지역 차원의 사업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도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의 정부 심의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올림픽 유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더욱 구체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지역 레거시(유산) 창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 심의 대응에 만

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의회 동의를 발판 삼아 중앙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유희숙 전주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이번 동의안 가결은 전주 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를 향한 도민과 도의회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부 심의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2030세대 대장암 · 갑상선암 발병 증가

## "권고 연령 이전이라도 이상 증상 맨 검사 필요"

과거 고령층 질환으로 인식되던 암이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2월 4일은 국제암연맹(UICC)이 제정한 '세계 암의 날'이다. 이 같은 시점을 맞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2030세대에서 대장암과 갑상선암 발병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0대 갑상선암 환자는 6만1,241명으로 2020년 대비 14.0% 증가했다. 특히 대장암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2024년 20~30대 대장암 환자 수는 6,599명으로 5년 사이 무려 81.0% 늘어났다.

대장암은 특히 2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남성 20대 대장암 환자는 2020년 대비 114.5%, 여성은 92.6% 증가했으며, 30대 역시 남녀

각각 84.0% 70.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202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29세 미만은 2014년 23.9%에서 2023년 33.6%로, 30~39세는 같은 기간 31.8%에서 39.8%로 크게 상승했다.

문제는 현행 국가 암 검진 체계에서 대장암 검진이 50세부터 시작되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30세대는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갑상선암 역시 젊은 층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대비 2024년 기준 20대 남성 환자는 35.0% 증가해 80세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대 여성 또한 21.9% 늘어나 70대 다음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젊은 층의 암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오상근 기자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군산소방서 주관 기관 합동으로 군산지역 대량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찾아 겨울철 화재 위험요인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직접 찾은 노홍석 행정부시장은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위기 대응 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 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경제에 '활력'

## 인구감소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 ·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 마중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도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비숙련 근로자에게 도시사추천을 통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거주 및 배우자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가능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법무부 사범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선 8기 전북자치도가 친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을 전북 인구의 10%까지 지자체에 부여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은 2023년 지역특화형비자(우수인재) 시범 사업을 첫 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서 시작해 2024년 1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숙련가능인력(E-7-4R) 추천제도 확산까지 포함해 처음 시행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인재 857명을 유치했다. 숙련가능인력 비자도 초기 배정 160명을 조기에 달성한 뒤 추가로 320명을 확보해 총 480명 모집을 완료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있다. 도는 시군(정읍,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및 대학 등과 협력해 외국인과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했다. 우석대, 전주대, 비전대 등 도내 8개 대학을 순회하며 유학생 대상 설명회도 진행했다.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를 발굴한 것이 모집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김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비숙련근

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일했고 단기간 근로자가 대부분이라 장기 근무자를 구하기 힘들었다"라며 "지역특화형 비자 시행 후 가족과 함께 정착하려는 숙련 인력이 늘면서 '인력난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아졌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려는 모습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지역거주비자로 전환한 외국인 근로자도 "사업을 통해 타 지역에서 근무하던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정주인구 확대 효과도 보이고 있다. 비자 전환자 외에도 동반가족 808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비자 전환자에게 정착지원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13개 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노무 상담, 통역,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기업 인력난 완화와 정주인구 확대를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전북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김성규 전북콘크리트협회장 연임

전북특별자치도 콘크리트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김성규 원장이 연임되어 2028년 2월 5일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성규 원장은 2024년 2월 취임 이후 지역 콘텐츠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 임기 동안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융복합 콘텐츠 육성과 기술 기반 산업 전력을 추진하며 전북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지난 임기는 전북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임기는 그동안의 성과를 확장하고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창작자와 기업,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 역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신규 공무원 1,29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휴직·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및 피지컬스 등 도정 주요 현안 대응, 통합돌봄 시행, 근로감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년(89명) 대비 603명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우수한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도정 발전의 주요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의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피지컬스 등 첨단 산업 분야 전담 인력 확보에 주력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정에 접목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등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채용도 대폭 확대했다.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만호 기자

# 임형택 혁신당 대변인 선임

조국혁신당이 중앙당 대변인에 임형택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인산지역위원장)을 선임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일 임형택 씨를 선임 대변인에 선임한 사실을 밝히며,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정치 경험과 민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의 메시지를 보다 현실감 있게 전달하겠다는 인선 취지를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제7·8대 인산시의회의원을 지낸 재선 시의원 출신으로, 그동안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지역 소멸 위기와 자치권 확대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논평과 정책 메시지를 맡아왔다.

또한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당의 전국 정당화와 내부 민주주의 강화에도 참여해 왔다.

임 대변인은 "호남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치의 언어로 전달하겠다"며 "정치개혁과 책임 정치의 가치가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인선을 통해 지역과 중앙을 잇는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로 제3대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 "올 신규 공무원 1292명 채용한다"

##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 역할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신규 공무원 1,292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휴직·퇴직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및 피지컬스 등 도정 주요 현안 대응, 통합돌봄 시행, 근로감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년(89명) 대비 603명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우수한 지역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도정 발전의 주요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의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피지컬스 등 첨단 산업 분야 전담 인력 확보에 주력한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정에 접목해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 등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채용도 대폭 확대했다.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만호 기자

등기 위해, 사회복지직 선발 인원을 지난해(40명) 대비 4.8배 이상 늘린 194명으로 확정했다.

관련 공직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인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에 대한 구분모집도 병행한다. 장애인 80명, 저소득층 31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33명을 별도로 선발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험은 총 4회에 걸쳐 시행되며, 원서 접수는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2월 23일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3월 9일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2월 23일 △제4회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월 20일 시작된다.

직렬별 상제 선발 인원과 응시 자격, 시험 일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절차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는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공직관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하여 도정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적임자를 발탁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 1조 벤처펀드, 민간 '전북펀드 7조포럼' 과 무관

## 공식벤처펀드와 혼동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의 공식 벤처펀드 정책과 민간 단체의 슬로건을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북펀드 7조포럼'이 출범했다. 이 단체는 전북의 자선운동 중심도시 도약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투자 유치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는 정책 연구소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전

북펀드 7조포럼 슬로건이 도의 공식 행정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벤처펀드 1조 원 조성'을 조기에 달성하며 비수도권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구축해온 만큼, 공식 사업인 '1조 벤처펀드'와 민간 단체의 활동이 오인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의 관심은 의미가 있으나 공식 행정 사업과 오인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 '도내 유통 먹는샘물, 보관이 품질 좌우'

## 전북 보건환경연 "직사광선 피하고 저온 · 그늘 보관해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대상으로 보관 방법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특성 분석 결과, 보관 환경에 따라 일부 성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연구원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은 전적으로 기준에 적합했지만,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관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은 전적으로 기준에 적합했지만,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보관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반 조사는 실제 생활환경을 가정한 △저온(냉장시설) 보관 △실내 상온 보관 △직사광선 노출 보관 △차량

내부 보관 등 4가지 조건에서 일정 기간 시료를 보관한 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인티몬, 브롬소염, 포름알데히드, 일반세균(중온·저온세균)의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원은 먹는샘물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그늘에 보관해야 하며, 차량 내부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빠르게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유통 먹는샘물은 전반적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올바른 보관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오만호 기자

# 도, 설 명절 가축전염병 차단 '비상방역 총력'

## 거점소독 30곳 · 통제소 45곳 운영... 축산차량 이동 전면관리 명절 전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정... 취약지역 집중 소독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과 차량 이동 증가로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군·유관기관 합동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타 지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P)이 잇따라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방역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일 전북 고창에서도 ASF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방역 경계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겨울철 방역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거점소독시설 30개소와 통제소 45개소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축산차량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모든 축산차량은 GPS 관제를 통해 거점소독시설 경우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으며, 소독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계도 및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또한 명절 전후인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2월 19일부터 20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가, 축산시설, 철새도래지, ASF 검출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농장 단위 소독과 전화 예방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의 모임과 행사도 제한한다.

특히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매일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ASF·구제역·AI 발생 동향과 시군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상시 점검·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